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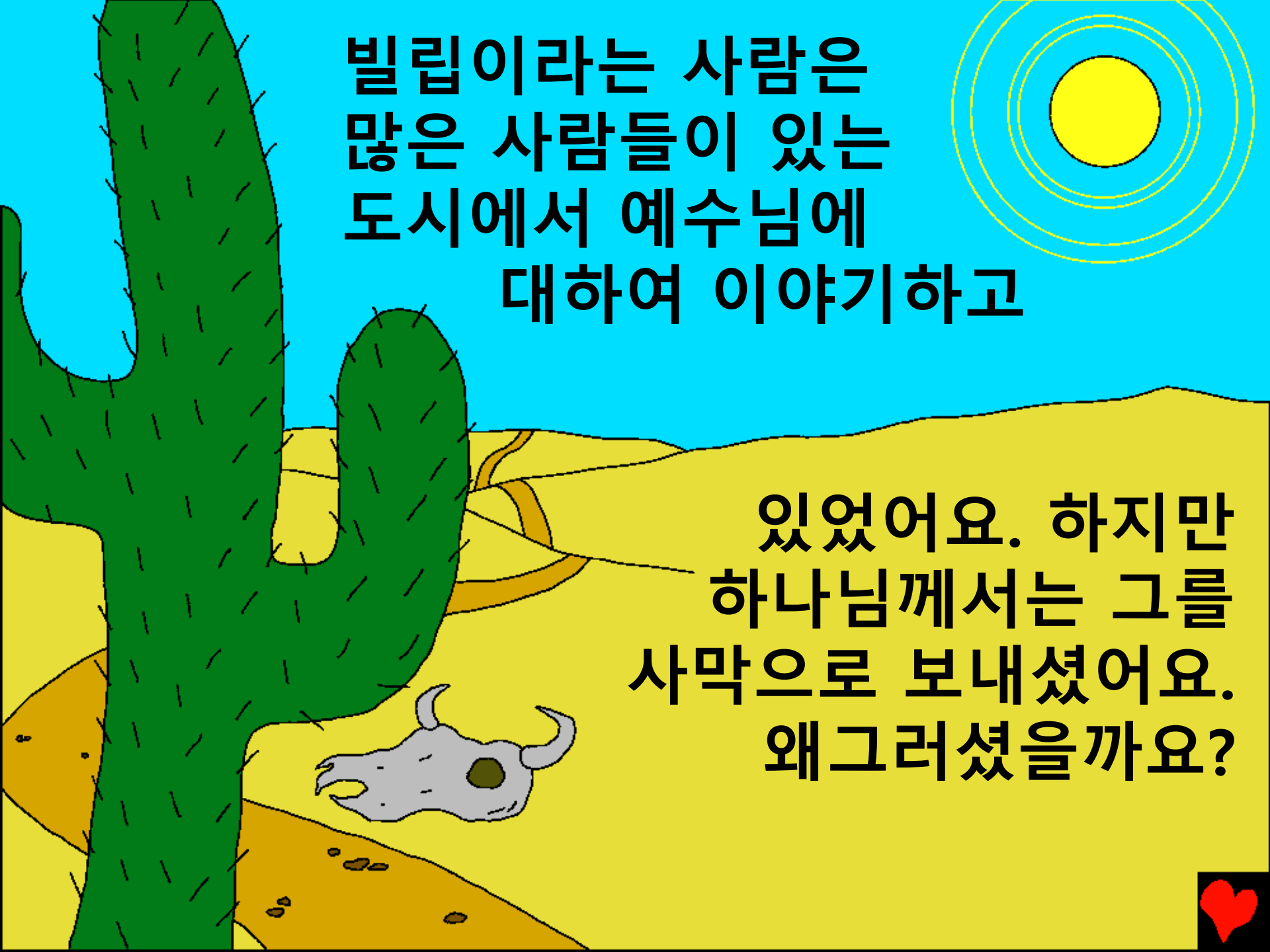
번역: Ji-il Kim

Alastair Paterson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큰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왜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밑에서 일하는 관리가 사막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는 집으로 향하는 중 특별한
책을 읽고 있었죠.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 했을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관리에게 보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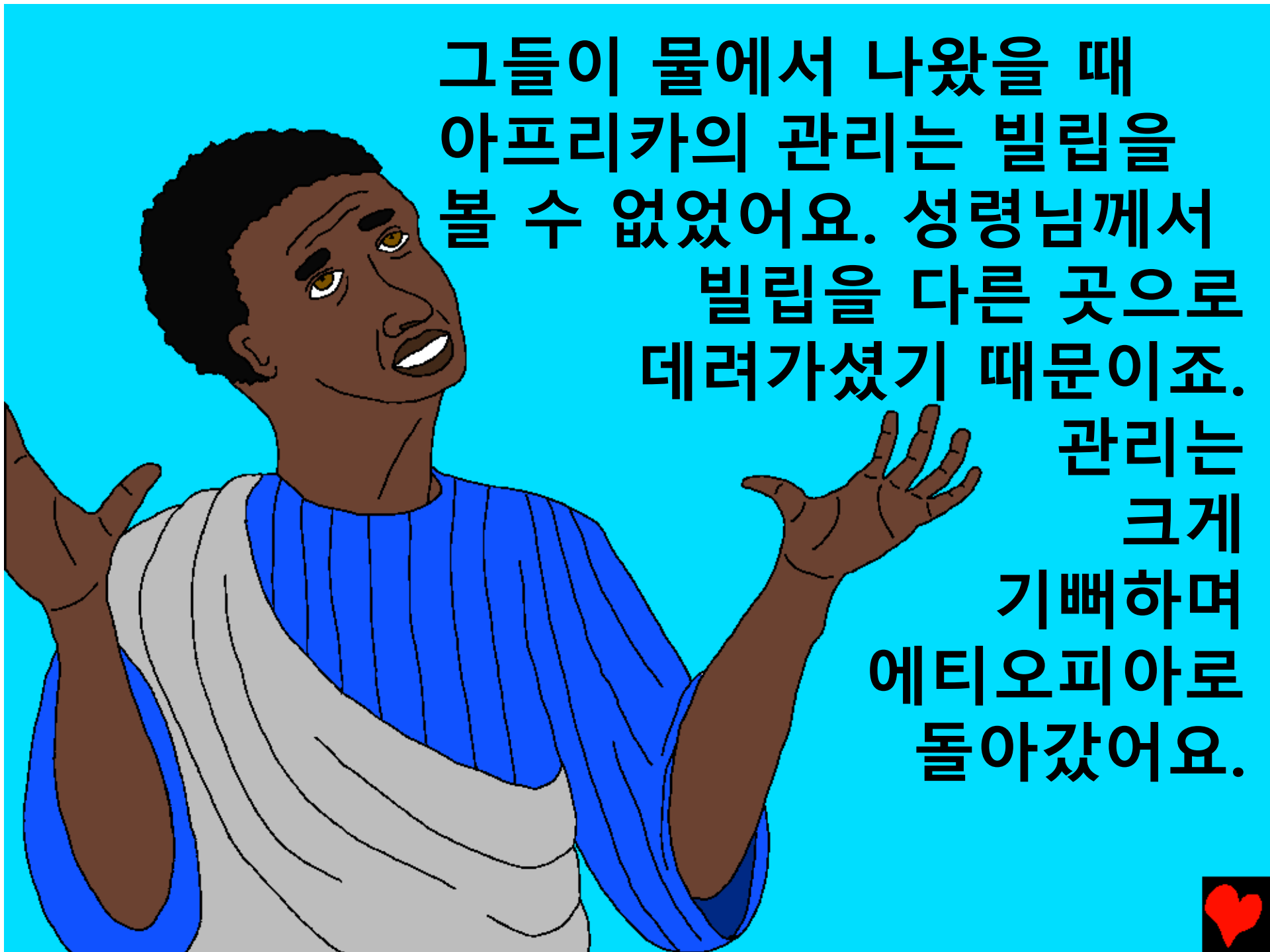
그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관리는 빌립에게
동행을 요청하였어요.

“이건 무슨 뜻 인가요?”
관리가 빌립에게 물었어요.
사막을 달리는 마차 안에서
빌립은 관리가 질문했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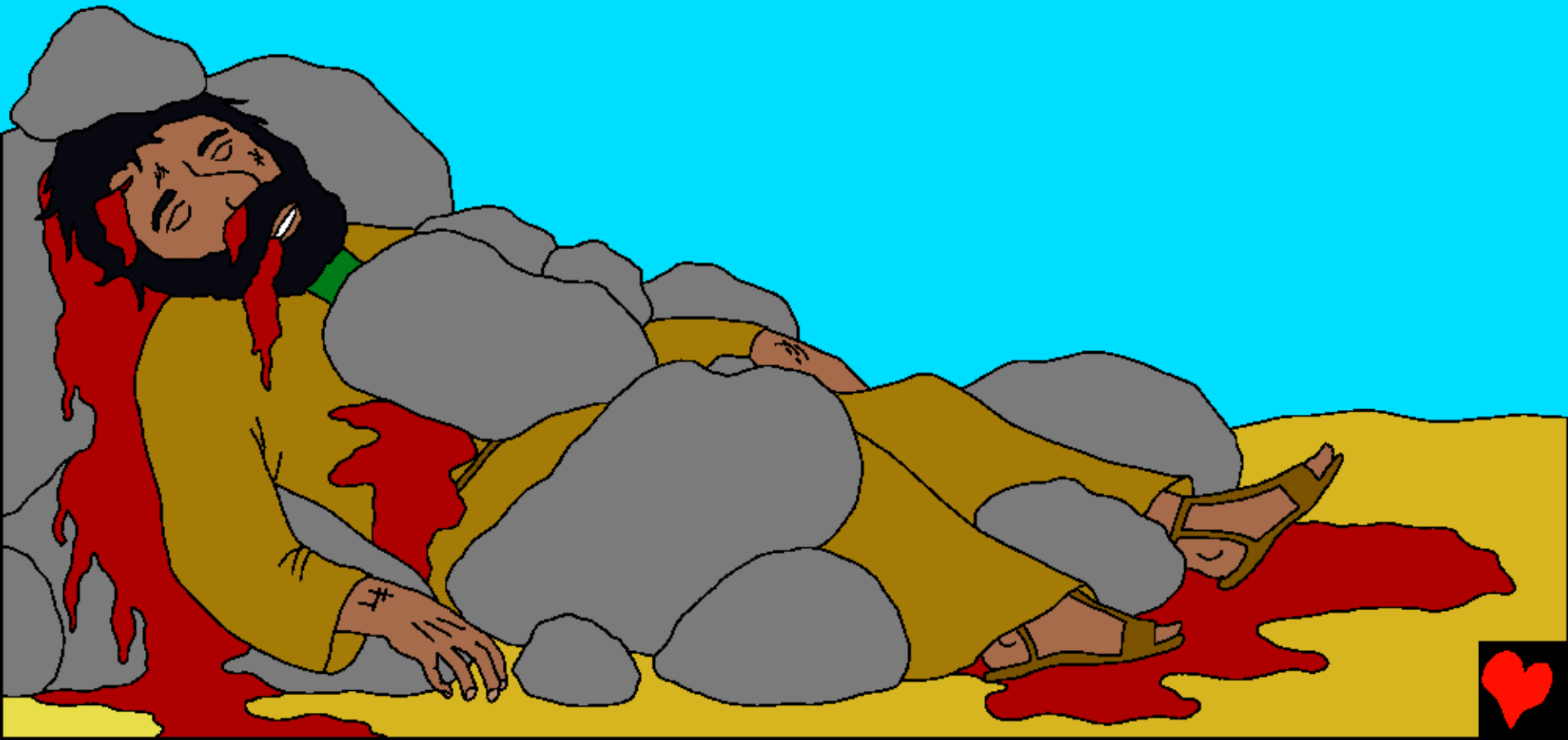
그
아프리카의
관리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물가가 보이자
관리는 “저도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빌립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는다면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관리가 대답하자 빌립은 물가로 그를 데려가서 침례를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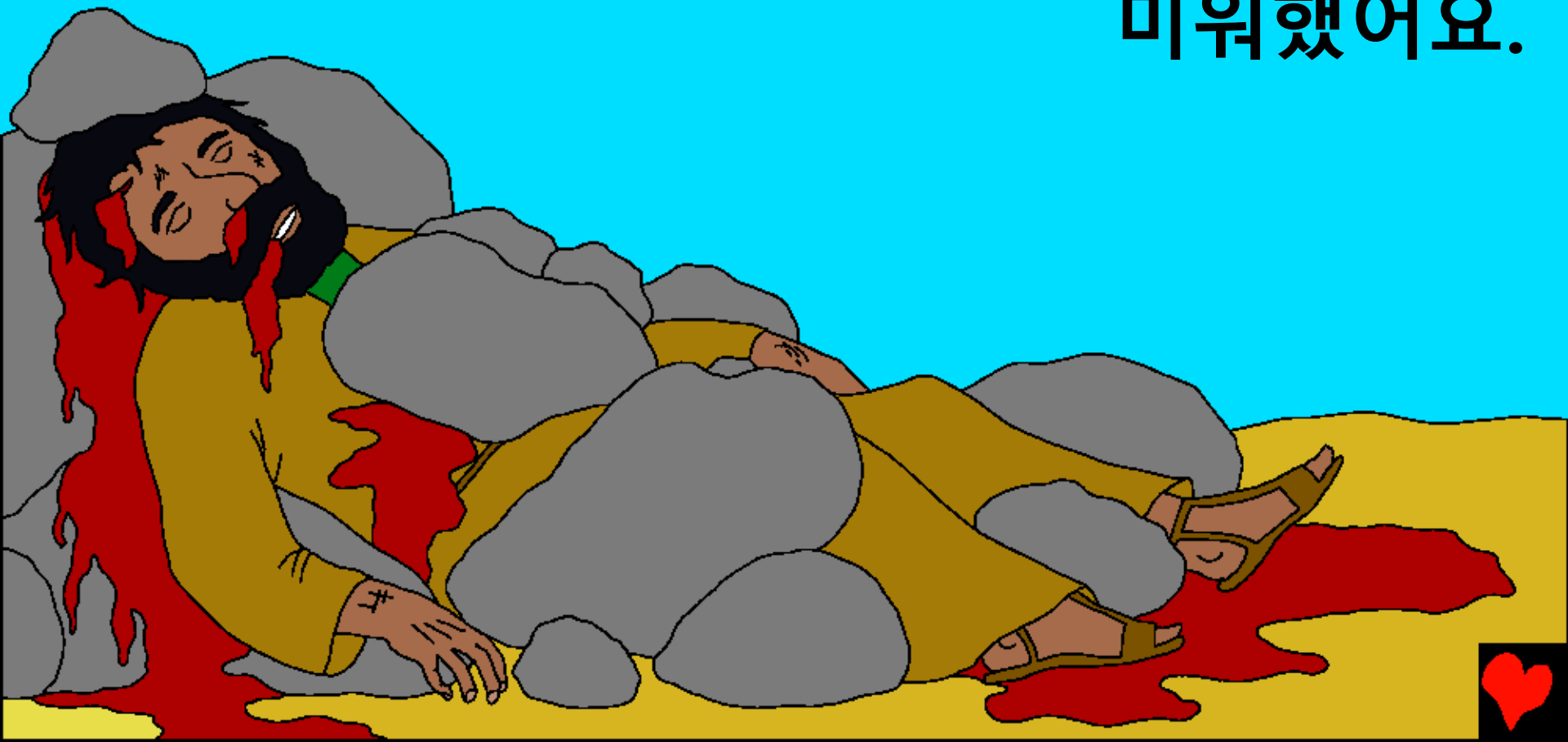

그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아프리카의 관리는 빌립을
볼 수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관리는
크게
기뻐하며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빌립의 친구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화가 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도왔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죽였으며
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어요.

불쌍한다소의사울!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멈춰야
하셨어요.
어떻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굉장한
빛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땅으로 쓰러졌고
어떤 음성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사울은 외쳤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이다”
두려움에 떨며 사울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도시로 가거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곳에서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였던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진 몸을
일으키자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사울은
3일간 눈이 안보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 하셨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돕기 위해 그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자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사울은 침례를 받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사울은
유대교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회당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워
했습니다.

“이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 하던자가 아니던가?” 하면서 말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울의
새로운 적들은 도시
입구에서 사울이 떠날
틈을 타서 그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새로운
친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사울을 큰광주리에
태워 성벽너머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던 사울은
그 이후로 새로운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 9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